

反唯心的 哲學觀(1)

裴相河君의 一考에 供함

安炳珠

裴相河君의 處女作(?)인 『非唯物的 哲學觀』이 發表된 以來로 學究者間의 論難이 紛紛한 모양이다. 裴君의 該論文에 對하여 우리의 몇분이 多少 論評한 바도 잇섯다. 만은 이제나마 다시 거기에 對한 再吟味를 容認 할 수 잇다고 하면 筆者도 所見의 二三을 적어 불가 한다.

◇

먼저 나는 裴君의 該論文의 價値는 別問題로 하고 그 學究者의 態度에만은 首背한다. 왜 그러냐하면 사람은 흔히 新興思潮-唯物論에 對하여 無意識的으로 追□ 盲從하는 者-만치만 裴君에 잇서서는 올튼지 글튼지 自己의 생각하는 그것을 남에게 말해보는 것이 當突한 行動이 안이고는 못된다. 짚아서 裴君은 自力이 「아직 確物論者도 아니고 唯心論者도 아니다... 將次 어느쪽으로 가게 될는지 알 수 업다.」는 言明을 보아서도 該論文이 自的 意識을 가지고 唯物論을 誹謗하려는 企圖가 안인 것은 裴君의 애담흔 告白-公開狀-을 기다리지 안코도 잘 알 수 잇을 것이다.

◇

다음으로 裴君이 李灌鎔 博士에 對한 公開狀의 前言撤回의 要求에 일으려서는 第三者인 筆者로서는 그다지 干涉 할 必要가 업다만은 何如間 李博士의 論文이 그 所說 前言에는 多少 裴君으로서의 不滿이엇다고 하더라도 博士의 本論의 一片이나마 一考의 材料를 삼기를 나는 裴君에게 動議한다. 李博士 亦是 反駁하기 爲한 反駁이 아닌 것을 알아줄 必要가 잇지 안흘가 한다. 李博士의 意識은 그것이 最近의 發展이지만 우리에게 敎訓되는 배- 또한 만타고 안할 수 업다.

◇

내가 只今이 붓을 들게 된 所以는 絶對로 裴君에게 對하여 自慢的 優越感을 가지고 裴君을 攻擧非難하려는 心思가 아니다. 나는 實로 裴君에게 不及

하는 바 만타 나아말로 不敢□一辭의 感이 업지 안타. 그러나 아모리 하야도 裴君의 該論文은 結局 認識 錯覺에 不過한 것이다. 나는 이제 裴君에게 若干의 參考 材料만을 提供하야 裴君의 그 錯覺된 『이데오로기』의 反射鏡이 되기를 스스로 바란다. 勿論 나의 이러한 勸告를 기다리지 안는 곳도 頭腦明哲한 裴君 스스로서의 前非를 清算 할 後日이 不遠에 잇겠지만……사라서 나는 參考 材料를 提供한다면서도 不幸히 參考書의 不足으로 十分 參照치 못하게 된 것을 미리 謝하야 둔다.

◇

이제 우리는 먼침 科學의 任務부터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모든 科學은 常識에 反抗하는 宿命을 가졌다고 한다. 何故?하면 普通 사람의 생각하는 것은 事實의 本質과는 逆으로 되어 잇슴으로 거긔에서 科學的 考察로부터 普通 사람의 생각을 □倒식힐 必要가 잇는 것이오 사라서 科學은 늘 常識과 鬪爭 할 宿命을 가지고 있다. 故로 참으로 勇氣잇는 者가 아니면 眞實한 科學者가 되기 어렵다. 科學은 事物의 本質이 現象形態의 逆인 것을 가라칠 쏘 아니라 何故로 本質은 그와 反對로 現象形態를 取하는 것까지 說明한다. 太陽이 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地球가 動한다는 것을 가르칠 쏘 아니라 何故로 우리의 눈에는 地球가 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안코 太陽이 動하는 것가 르 보이는 가를 說明한다. (本質과 現象과의 辨證法的 統一)

그러니까 裴君의 觀察은 結局 本質을 把握치 못하고 皮相的 現象만을 把握하려는 徒勞-다시 말하면 技를 捕하려다가 影을 捉하는 活劇에 不過한 것이다.